



일본 다카치호 가구라 공연

곳의 울림, 아시아로 확장되다

국립남도국악원 ‘2025 굿음악축제’…오는 19-21일

굿음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시대적 가치를 더하는 축제가 진도에서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25 굿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아시아의 굿음악: 치유와 위로의 공간’을 주제로 열린다. 다양한 문화권과 예술적 해석 속에서 굿음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올해 축제는 ‘아시아의 굿음악: 치유와 위로의 공간’을 주제로 열린다. 다양한 문화권과 예술적 해석 속에서 굿음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공연과 학술회의, 대담,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일본·베트남 전통 굿 공연팀을 초청해 굿음악의 세계화와 아시아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연다.

축제의 첫날인 19일 오후 7시에는 일본 미야자키현 다카치호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마을제사 의식 ‘다카치호 가구라’가 무대에 오른다. 신을 맞이하는 가부 의식이자 일본 신화 속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풀어내는 전통 의식이다. 20일 오후 7시에는 베트남 북부 지방에서 행해지는 무속의례 ‘덴동’ 공연이 펼쳐진다. 덴동은 영매가 신의 뜻을 전하며 음악과 무용을 곁들여 의식을 치르는 행사로, 베트남 민간신앙의 대표적인 곳이다.

국내 팀으로는 총 3팀이 참여한다. 우리소리바라지는 현

일본 다카치호 마을제사·베트남 무속의례 ‘덴동’ 등

해외 굿음악 초청 공연부터 학술대회까지 행사 다채

대적인 창작굿 ‘입고출신’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무대를 선보인다. 박범태와 굿프렌즈는 동해안별신굿을 기반으로 한 창작곡 ‘고을마기’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정서와 삶을 재현한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22-4호 남해안별신굿보존회는 망자의 천도를 기원하는 전통굿 ‘동영오귀새남굿’을 통해 굿음악의 원형적 감성과 정신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

학술행사도 눈길을 끈다. 19일에는 ‘아시아의 굿음악’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다. 일본·베트남·미얀마·몽골 등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굿과 음악을 비교하고 문화적 공통성과

특수성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다음 날인 20일 오전 10시에는 일본과 베트남 공연팀 예인들과의 대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각국 무속 예술의 맥락과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사주·타로 보기, 부적 만들기, 인생네컷 촬영,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진도 특산물 시식과 판매가 이뤄지는 푸드트럭 장터도 열려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전석 무료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축제 현장 인증샷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지난 2023년 한전KDN 본관 로비 기획 전시 모습

전남문화재단, ‘남도예술은행 in 렌트’ 공모

30일까지 접수…30회 이상 평면작품 대상

전남문화재단이 ‘남도예술은행 in 렌트’ 작품 공모를 추진한다.

‘남도예술은행 in 렌트’는 도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전남 미술작가에게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도예술은행’의 기획사업 일환으로,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 임대료 전액이 지급되며 재단 기획행사 참여 기회와 우선권도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남 도내 거주자 또는 전남 출생자, 전남 소재 초·중·고·대학 졸업자로, 개인전 1회 혹은 단체전 5회 이상 참여 경력이 있어야 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와 장애 예술가의 작품은 우대 선정된다. 모집 분야는 30회 이상의 평면 작품으로, 서양화·동양화·미디어 등이며 1인당 최대 10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남도사이버갤러리(namdogallery.or.kr)’에서 작가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태괘(泰卦) 임괘(臨卦)는 건강체, 득괘의 본괘 지괘가 팔순괘이거나 분묘지상이면 필사(必死) 등 판단”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16강】병정활동비결

먼저 치병법을 주단해 요결(治病法推斷要訣)하면 다음과 같다.

병자의 병(病)의 원인과 증상, 치유 여하 등을 추단하는 방법을 일괄해서 병점(病占)이라 한다. 병점에 있어서 치병법(治病法)을 터득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선 얻은 득괘를 건강체를 표시하는 괄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즉, 병점에서 ‘지천태’(地天泰)괘를 건강체로 삼고, 또는 ‘지택임’(地澤臨)괘도 거의 건강체에 가까운 것으로 삼는 까닭에 환자에 대해 서죽(筮竹)을 들어 얻은 괄을 어떻게 하면 ‘지천태’ 또는 ‘지택임’의 건강체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지뢰복’(地雷復)괘라도 도 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외 표리(表裏)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병점에 있어 득괘(得卦) 판단시 주의해야 할 것은 발병 전후(前後)에 외부에 오한(惡寒) 전을(戰慄) 등이 있으면 반드시 내부에 열(熱)을 품고 있으며, 반대로 외부에 열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내부에 냉한(冷寒) 증후가 있다. 즉 이화(離火)괘는 외면에 열을 나타내고 있으나 내면에는 감수(坎水)의 냉한을 포함하고 있다. 병점을 활단(活斷)함에 있어서는 내외(內外) 표리(表裏)의 관찰을 대만히 하면 안된다.

다음은 중증(重症)과 난치 병점(難治病占)에 대한 판단이다.

환자를 득괘해 본래나 지괘에 팔순괘(八旬卦, 重卦)를 얻은 경우 대개 완치 불가인 필사(必死)로 본다. 예컨대 다음 ‘화천대유(火天大有)’ 효후동, ‘화산려(火山旅)’ 사효동’ 등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지괘가 팔순괘가 되기 때문이다.

대유지간(大有之乾 五動)		려지간(旅之艮 四動)	
화천대유	건위천	화산려	건위산

중병(重病)환자에 대해서 천지비, 뇌산소과, 택지체, 지수사, 뇌지에 등을 득괘하면 모두 다음과 같이 분묘(墳墓)의 상(象)으로 치유가 어려운 필사(必死)로 볼 수 있다.

분묘지상(墳墓之象)				
천지비	뇌산소과	택지체	지수사	뇌지에

병점에서 수화기제, 화수미제를 얻은 경우에도 치유가 어렵다. 즉 병점에서 서죽을 들어 수화기제나 화수미제

를 얻으면 수화(水火)가 상전(相戰)하는 상이나 일시적인 소강(小康)을 얻더라도 반복 되풀이 돼 끝내는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병증반복(病症反覆)		성병지상(性病之象)		
수화기제	화수미제	산풍고음란	뇌택귀매(색욕)	택산형(성교)

성병(性病)의 점단은 다음과 같다.

점사(占師)에게 솔직히 병증을 털어 놓지 않는 병은 성병의 경우인데 택산형, 산풍고, 뇌택귀매를 득괘하면 성병과 관련된 에이즈, 매독, 임질 등에 걸린 환자가 많다.

택산형은 성교(性交), 산풍고는 음란(淫亂), 뇌택귀매는 색욕(色慾)의 괄로서 모두가 남녀의 교제로 인해 발병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원인이 돼 종기(腫氣)가 나는 모습이다. 또한 감수(坎水)를 주로 하는 괄도 성병인 임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인불명인 질병으로 산수몽괘를 얻었다면 폐결핵 초기 혹은 폐병이 되려고 한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산수몽괘의 음양을 전도하면, 즉 착괘(錯卦)인 태화혁은 이화(離火)의 불로 태금(兌金)의 폐를 태우는 모습이 은복(隱伏)해 있기 때문이다.

원인불명		타박상	종기 알종
산수몽	택화혁(전괘)	뇌지에	지산점

뇌지에를 득괘했을 경우 타박상이 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즉 전괘(全卦)의 곤(坤) 가운데 일양(一陽)이 가로 놓여 감수(坎水)의 닳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감혈(坎血)이 응어리져 독(毒)이 돼 통증이 있는 타박상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지산점, 뇌지에 두 괄을 뱃속(腹中)의 종기, 암종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유전성(遺傳性)에 의한 병증(病症)을 점단(占斷)한 방법이다.

지천태, 진위뢰, 풍산점, 천풍구, 산풍고, 뇌택귀매, 택산형, 수화기제, 화수미제 등의 괄은 모두 부모의 유독(遺毒)을 이어 받아서 그것이 발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어린이 병점에서 이를 득괘하면 그 대부분이 태독(胎毒)으로 점단해도 무방하다.

유전병(상염색체 등)							
지천태	진위뢰	풍산점	천풍구	산풍고	뇌택귀매	택산형	수화기제

삼양삼음(三陽三陰)괘인 산택삼, 풍뢰익, 뇌풍항, 풍수환, 수택절, 화뢰서합, 화산려, 수풍점, 택수곤, 택뢰수 등도 유전성의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삼양 삼음괘는 남녀문제에서 득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괄

들은 원래 지천태, 천지비에서 비롯돼 교역생괘를 통해 원괘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인(老人)과 소아(小兒)의 병점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지천태, 지택임을 노인의 건강체로 간주하지만, 노인에 있어서는 지천태보다는 지택임으로서 건강체로 삼는다. 그것은 태괘(泰卦)보다는 일양효가 부족한 임(臨)의 괄상이 노인의 보통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음양의 정기가 상교(相交)하지 않는 천지비를 노인의 보통상태로 보아 건강체로 간주하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위독 중증으로 삼는 곤위지를 노부인의 보통상태로 삼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치병법을 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천태로 굳이 복귀시킬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인 건강체				소아병(小兒病)	
후일변인	뇌노인	점노인	부노부인	태위 소음(소아)	태위 소음(소아)

곤위지를 노부인의 건강체를 보나, 보통은 중증 위독으로 본다. 소아 어린이에 대해서 곤위지를 득괘했다면 거의는 위장 소화불량으로 간명한다. 따라서 수지비, 지수사 등 기타의 괄가 중지군이 되는 점을 얻어도 땅으로 들어 간다고 해서 사망으로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거의는 소화불량, 소화기 중의 식독(食毒)이 설사해서 평유(平愈)에 이른다.

소아에게 가장 많은 경기(驚氣), 감병(瘧病), 감기, 만성 소화불량, 영양장애 등은 손풍을 주로 하는 괄인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손풍이 상하괘에 들어있는 손위풍, 천풍구, 지풍삼, 태풍대과, 산풍고, 수풍점 등은 감병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약물(藥物)의 적부(適否)와 오진(誤診) 판단하는 방법이다.

약물(藥物)의 적부(適否)와 오진(誤診) 판단은 변괘의 이효와 오효의 응부(應否)에 의해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역점에서는 이효와 오효의 응부는 거의가 본괘 상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병점에서는 지괘의 응부에 의해서 약효의 유무(有無)를 본다. 예컨대 장기간 투약을 했으나 아직껏 약효(藥效)를 보지 못한 환자에 대해 투약의 효과에 대해서 점을 쳤을 경우, 본괘에는 이효와 오효의 응이 없어도 변괘의 이효와 오효가 음양 상응하는 경우에는 오늘까지는 어쨌든 앞으로는 약효를 볼 것으로 간명(看命)한다.

병점에 있어서 수택절(水澤節)이 수천수(水天需)로 변하거나 천수송(天水訟)이 천지비(天地否)로 변하는 점은 의사의 오진을 가르키는 경우가 많다(節需, 訟否). 수택절, 천수송괘는 병원(病源), 병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해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수택절은 상괘 감독(坎毒)의 일양이 오효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속히 이를 내려서 지천태괘를 만들어 보통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진찰과 처방이 그르치면 병세가 늘어날 수천수에 이르고 더욱 나아가 태천괘에 이르러 끝내는 절망상태에 빠지고 만다.

오진(誤診)			
절지수(節之需)	송지비(訟之否)	송지비(訟之否)	송지비(訟之否)

천수송은 천수위행(天水違行)의 모습이므로 기혈불화(氣血不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속히 강기보섭(降氣補攝)의 처방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오진해 하괘 이효의 정기를 소모시켜 피로에 빠뜨려서 천지비가 되니, 결국은 제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오진(誤診)으로 병증(病症)이 악화되는 것이다.

지괘(之卦)가 산뢰이(山雷頤), 화뢰서합(火雷噬嗑)인 경우 치병법이다.

만일 병점에서 산뢰이 괄로 변하는 경우는 앞으로 치료법을 쓰지 않더라도 자연히 회복된다. 섭생(攝生)과 식이보양(食餌保養)에 의해서 치유에 이르는 경증(輕症)으로 점단한다. 병점에서 화뢰서합(火雷噬嗑)을 득괘했다면 고식적인 자기치료법에 의해서 마냥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사효의 양을 변화시켜 산뢰이 괄로 만들어 회복시켜야 한다.

경증(輕症)	요치료(要治療)
산뢰이	화뢰서합

만일 병점에서 산뢰이 괄로 변하는 경우는 앞으로 치료법을 쓰지 않더라도 자연히 회복된다. 섭생(攝生)과 식이보양(食餌保養)에 의해서 치유에 이르는 경증(輕症)으로 점단한다. 병점에서 화뢰서합(火雷噬嗑)을 득괘했다면 고식적인 자기치료법에 의해서 마냥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사효의 양을 변화시켜 산뢰이 괄로 만들어 회복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점단 비해야이다.

기사회생(초유 → 추구)	
곤위지	지뢰복

환자를 점쳐서 본괘의 초육이 변하는 점괘를 얻은 경우에는 원기회복해서 기사회생의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중증환자를 점쳐서 곤위지(坤爲地)괘를 얻었을 경우 위독한 경우이지만 초효변을 얻었다면 병상이 위독하더라도 회복의 징조가 있다고 점단해도 지장이 없다. 이효변이었다면 원기회복이라 보지 않고 도리어 필사(必死)의 점이 된다. 이에 반해서 내외괘의 주효가 변하는 경우에는 거의 완치불가의 점으로 본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도, 일오전)
-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